

일제강점기 이명칠(李命七) 저작 『한일선만신자전(漢日鮮滿新字典)』연구: 그 성격과 중국어음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 현 아

(용인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근대 시기에는 기존의 자서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편찬 방식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자전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한국어음에 대한 표기와 낱글자에 대한 뜻풀이를 기본적인 형식으로 하지만 이 중 많은 자전이 중국어음을 병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 자전은 당시 중한사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완전하나마 중국어사전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한일선만신자전(漢日鮮滿新字典)』(1937)은 관립한성한어학교(官立漢城漢語學校) 교사를 역임한 이명칠(李命七)이 편찬하고, 한글학자이자 중국어학자인 문세영(文世榮) 감수를 맡은 자전으로, 관화음, 동북방언음과 해당 글자의 중국어 안의 용례를 실었을 뿐만 아니라, 성모, 운모 발음에 대한 자세한 기술까지 담은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면모가 극대화된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전에 나타난 관화음은 '容', '榮'이 영성모로, '兄', '榮', '永'의 운모가 '궁', '波', '破', '末'의 운모는 'ㄷ'로 표기되었으며, 여러 성조 이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음, 즉 동북방언음은 見組 및 曉匣母가 구개음화되어있지 않으며, 日母를 영성모로 읽고, ㄱ 음절의 운모를 ㅛ로 읽고, '知', '直', '之'를 tsi와 같이 읽는 특징이 나타났다.

근대 자전은 20세기 초 우리나라 한자음과 한자 어휘 뿐만 아니라 중국어음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한국어와 중국어학사를 밝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한일선만신자전』의 체제와 중국어음을 고찰하여 그 연구 가치를 드러내고,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근대 자전의 역할을 재조명함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4101)

로, 근대 사전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한일선만신자전』, 근대 사전, 일제강점기, 이명철, 북경관화, 만주음, 동북관화

1. 머리말

우리나라 근대 시기는 사전 편찬의 역사상 조선시대 자서의 전통을 계승하고,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편찬 방식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운서의 체제와는 다른 형식으로서의 탈바꿈, 한문에 한글로 뜻풀이를 추가한 것은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여러 언어를 사용한 음의 표기나 뜻풀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일본어의 사용,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영어의 사용, 중국과의 교류, 이주로 인한 중국어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근대 사전에서는 가타카나, 주음부호 표기, 일본어 및 영어 해석이 등장하였다.¹⁾ 『한일선만신자전(漢日鮮滿新字典)』(1937) 역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자전으로, 제목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자에 대한 일본어와 한글 어음 표기 이외에도 만주어음까지 표기하고 있는, 당시 사전 중에 보기 드물게 여러 문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음을 표기한 자전이라 할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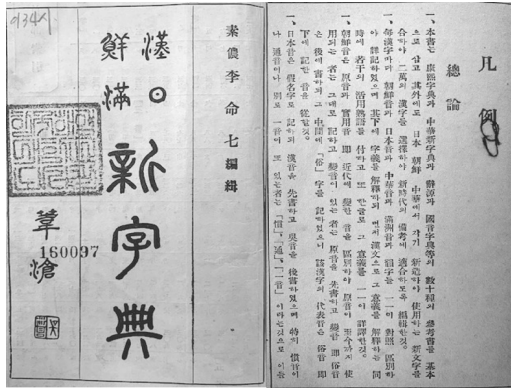
1) 이 시기 일본어나 영어로 해설된 자전은 『일선신옥편(日鮮新玉編)』, 『실용선화사전(實用鮮和辭典)』, 『회중일선자전(懷中日鮮字典)』, 『내선신옥편(內鮮新玉編)』, 『한일조선문신옥편(漢日朝鮮文新玉篇)』, 『일선화영신자전(日鮮和英新字典)』 등이 있다(하영삼 외 2019:17). 또한 『한일선신자전(漢日鮮新字典)』, 『내선신자전(內鮮新字典)』, 『국한일영신옥편(國漢日英新玉篇)』, 『일선화영자전』 등에서는 가타카나가 표기되어 있다.

2) 『한일선만신자전』은 단국대학교 올곡기념도서관, 서원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19세기 말 근대 학교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가 교육되기 시작하였고, 1895년 외국어 학교 관제에 따라 근대식 외국어 학교가 설립되었다.³⁾ 『한일선만신자전』은 1891년 설립된 외국어 학교인 관립한성한어학교(官立漢城漢語學校)의 졸업생이자 이 곳에서 중국어 교사를 역임한 이명칠(李命七)이 편찬하였다.⁴⁾ 그는 이 자전 이외에도 『한한화지신자전(漢韓華支新字典)』(1956)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자전에 대한 화음(華音), 즉 중국음과 만음(滿音), 즉 만주국에서 쓰인 중국어의 어음에 대한 감수는 문세영(文世榮)이 맡았는데, 그는 1938년 최초의 뜻풀이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지은 인물로 유명하지만 중국어에도 해박하여 『속수만주어자통(速修滿洲語自通)』(1934), 『중국어자통(中國語自通)』(1938)을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일선만신자전』은 중국어 교학과 관련된 인물들에 의해 완성된 자전이기에 중국어 학습에의 효용을 염두에 두고 편찬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학술문화재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자는 이 중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수집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3) 관립한성일어학교(官立漢城日語學校)는 1891년 서울에 세워져 운영되고 있었으며, 1895년에 인천, 1907년 평양에도 설치되었다. 관립한성영어학교(官立漢城英語學校)는 189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관립한성프랑스어학교(官立漢城法語學校)는 1895년, 관립한성러시아어학교(官立漢城俄語學校)는 1896년, 관립한성독일어학교(官立漢城德語學校)는 1898년 설립되었다.
- 4) 이명칠은 관립한성한어학교의 제 3회(1902년 12월) 졸업생이다. 1900년 10월 외국어학교의 졸업생을 졸업과 동시에 (부)교관으로 임명하거나 특별시험으로 교관에 임명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명칠은 1895년에서 1906년까지 관립한성한어학교에서 가르친 부교관 중 한 명으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졸업 이후 부교관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김영우 1983:166, 노인화(1989:160) 참조). 그는 관립한성한어학교에서 퇴임한 이후 경신학교(敬新學校), 협성실업학교(協成實業學校),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 법학전문학교(法學專門學校)의 교사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산학통편(算學通編)』, 『대수학(代數學)』 등 다양한 수학교재를 저작하여 수학계에 위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im_108_02560, 검색일: 2022년 4월 22일)



[그림 1] 『한일선만신자전』의 표지 (좌), 『한일선만신자전』의 범례 (우)



[그림 2] 『한일선만신자전』의 본문

『한일선만신자전』은 [그림 2]에 나와있듯이 한자, 한자음에 대한 한글 표기, 한음(漢音)과 오음(吳音)의 가타카나 표기, 중화음(中華音)의 주음자모(注音字母), 한글, 성조 표기, 만주음(滿洲音)⁵⁾의 주음자모, 한글, 성조 표기, 운(韻), 한문 해설과 이에 대응하는 한글 해설로 이루어

5) 여기서의 만주음이란 만주족의 언어의 음이 아닌, 만주국, 즉 만주국이 위치했던 동북지역에서 쓰여진 중국어의 어음을 의미한다.

져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뜻풀이 뒤에 ‘華字’, ‘華滿’, ‘華’를 쓰고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예로 들기도 하였다. 한자에 대한 한문, 한글의 뜻풀이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중국음 및 만주음에 대한 표기, 중국어에서의 용례까지 실어 중국어의 음과 뜻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두었다는 것은 동시대 기타 이중언어사전과는 구분되는 『한일선만신자전』만의 독특한 점이다. 하영삼 외(2019)에서는 근대 시기 자전이 사전을 겸용한 방식으로 현대 중국어 사전의 전신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일선만신자전』의 이러한 점은 당시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자전은 대부분 국어학계나 한문학계의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체제의 특징과 변화 양상, 계승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근대 자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많은 자전에 대해 세부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선만신자전』 자체도 학계에 널리 알려진 서적이 아니며, 거의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사전의 전신으로써의 『한일선만신자전』의 성격과 이 안에 표기된 중국어음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이 책의 연구적 가치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에 편찬된 『한일선신자전(漢日鮮新字典)』, 『내선신자전(內鮮新字典)』, 『국한일영신옥편(國漢日英新玉篇)』, 『일선화영자전(日鮮華英字典)』 등과 같은 이중언어 사전, 동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속수한어자통(速修漢語自通)』, 『지니어집성(支那語集成)』, 『중어대전(中語大全)』과 같은 중국어 회화서와 비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음의 특징을 살펴 보기 위해 『중원음운(中原音韻)』, 『이씨음감(李氏音鑑)』, 『음운봉원(音韻逢源)』과 같은 북경음을 기반으로 한 운서, 20세기 초 편찬된 『국음자

6) 근대 자전에 대한 연구는 전일주(2003), 박형익(2012), 하영삼 외(2019)와 같은 전문 저서 이외에도, 정재철(2013), 하강진(2005), 김역섭(2016), 이준환(2019), 신상현(2021) 등이 있다.

7) 『한일선만신자전』은 박형익(2017), 한중선(2015) 안에서 초보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것이 유일하게 이루어진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전(國音字典)』, 『경음자휘(京音字彙)』과의 비교 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II. 『한일선만신자전』의 체제와 성격

우리나라에서는 역대로 다양한 형태의 사전이 출판되었다. 정재철(2013)은 우리나라 자전류를 운서(韻書), 유서(類書), 옥편(玉篇, 혹은 자전), 사전(辭典)의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운서는 압운(押韻)자를 찾고 시작(詩作)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동국정운(東國正韻)』과 같이 한글 창제 이후 우리나라 한자음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운서 이외에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삼운성휘(三韻聲彙)』, 『규장전운(奎章全韻)』은 당시 중국음과 우리나라 한자음을 모두 기록하였다. 두 번째, 유서는 한자어휘 사전으로, 『훈몽자회(訓蒙字會)』, 『유합(類合)』, 『신증유합(新增類合)』과 같은 몽학서 이외에 『물보(物譜)』, 『명물고(名物攷)』, 『명물찬(名物纂)』과 같은 명물류(名物類) 유서가 있다. 운서처럼 최대한 많은 한자에 대한 발음을 수록하려는 목적이 아닌 어휘를 기록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록된 한자의 수량이 운서보다 적다. 또한 우리나라 한자음만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옥편, 혹은 자전은 사성(四聲)으로 글자를 구별하여 압운자를 용이하게 찾기 위한 운서와는 달리 부수에 따라 표제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운회옥편(韻會玉篇)』, 『신간배자예부운략옥편(新刊排字禮部韻略玉篇)』, 『삼운성휘보옥편(三韻聲彙補玉篇)』, 『전운옥편(全韻玉篇)』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문으로 해설이 기록되어 있고, 한국한자음으로 음이 표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인 『한일선만신자전』 이외에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 『자전석요(字典釋要)』, 『신자전(新字典)』 등 근대 자전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은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 『동아한한대사전(東亞漢韓大辭典)』,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과 같은 현대식 한자 사전으로, 이는 한자 자체

를 설명한 부분과 이것이 들어가는 어휘를 설명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기적으로 이들을 정리해 볼 때, 근세 시기에는 운서, 유서, 자전이 모두 편찬되었으며 근대 시기에는 운서는 편찬되지 않고, 자전, 유서가 주를 이루었으며, 현대에 와서 사전이 본격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한일선만신자전』은 표면적으로는 근대 시기 부수에 따라 한자를 나열하고 음과 뜻을 기록한 자전이다. 그런데, 이것은 왜 중국어 음, 만주어음, 중국어 어휘를 기록한 ‘중국어 사전’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시대 이후부터 등장한 중국어 어휘서(혹은 사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운서나 유서, 자전과는 궤적을 달리한다. 조선시대에 중국어 어휘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으로는 『역어유해(譯語類解)』, 『역어유해보(譯語類解補)』, 『화어류초(華語類抄)』가 있다. 이들은 흔히 ‘유해류(類解類)’라고 불리며, 천문(天文), 관부(官府), 인품(人品), 지리(地理), 음식(飲食) 등 주제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고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였으며, 뜻풀이를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은 당시의 한문 안의 어휘가 아닌 중국어 구어, 즉 회화에 쓰이는 단어를 모은 것이라는 점이다. 『역어유해보』에서는 “사물의 부류는 매우 많으나 각 지역의 말은 하나가 아니므로, 우리 나라 사람으로써 화어(華語)를 배우는 사람은 진실로 두루 알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여 마땅히 틀어져 어긋나 서로 막아서 들지 않는 바가 있다. 이 『역어유해(譯語類解)』를 지은 이유는, 먼저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엮어 책으로 지으시니, 거의 수천 개의 단어를 분류하고 모아, 이 화어(華語)라는 장대한 산을 섬세하게 궁구하고 널리 정밀하게 고구하셨다.”⁸⁾라고 하여 이 책이 ‘화어’, 즉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한 의도로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화어류초』의 편찬을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

8) “物類有萬方言不一，以我人而習華語者，苟未能周知而徧解互有所齟齬，而扞格此『譯語類解』之所由作也。而先大父實編成之其爲書，殆數千言分門彙類，纖悉精博寔華言之莊嶽也。”

은 형식의 중국어 어휘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후 근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많은 중국어 회화서가 출판되었고, 이 안에 주제별 어휘를 별도로 수록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어휘’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부재했다. 현대식 중국어 사전이 편찬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1966년에 이르러서야 웨이드(Wade)식 발음표기를 채택하고, 음평(陰平), 양평(陽平), 상성(上聲), 거성(去聲), 경성(輕聲)에 따라 어휘를 나열한 중한사전인 ‘민중 신중국어사전’이 편찬되었다. (김현철 2018:78)

따라서, 중국어 어휘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은 조선시대 유해류가 편찬된 이후 1966년 현대식 중한사전이 편찬되기까지 크나큰 공백기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편찬된 사전에서는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서명 예자	『한일신 신옥편』	『일선화 영신사전』	『내선 신사전』	『한일화영 신사전』 ¹⁰⁾	『국한 신옥편』	『국한명문 신옥편』
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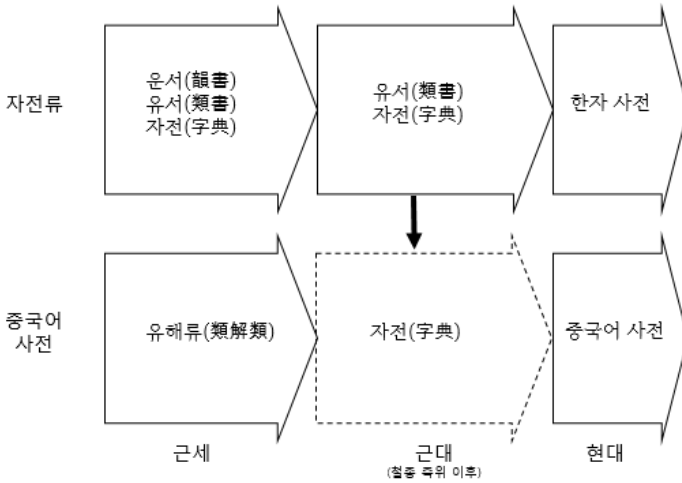
9)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 안의 어휘 정리 부분은 조선시대 유해류의 주제 분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한어지남(漢語指南)』에서는 數目部, 四季部, 禮拜部, 月份部, 日期部, 時辰部, 天文部, 地理部 등으로 어휘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 『화어정선(華語精選)』, 『지나어집성(支那語集成)』, 『중국어자통(中國語自通)』, 『만주어자통(滿洲語自通)』, 『지나어대해(支那語大海)』 등 대부분의 중국어 회화서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어휘 목록이 등장한다.

10) 『일선화영신사전』과 『한일화영신사전』은 서명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근대 시기에는 저작권 의식의 결여로 인해 동일 판본에 대해 서명만 달리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 사전은 당시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영삼 외 2019:18-19).

본래 한국한자음과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는 것은 조선시대 운서의 기본적인 형식이었다. 『규장전운』을 마지막으로 운서가 더 이상 편찬되지 않으면서 근대에 와서는 자전을 통해 중국어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국어 ‘발음 사전’적 역할을 겸한 것이다. 다만, 자전은 기본적으로 글자에 대한 뜻은 제공해주지만, 중국어 어휘에 대한 뜻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을 것이라 본다. 첫 번째는 개화기 이후 광범위하게 쓰인 국한문체(國漢文體)로 인함이다. 국한문체를 원활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음이나 국문 표기, 한자의 뜻을 잘 파악해야했고, 자전은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공구서의 역할을 했다(이준환 2019). 즉, 시대적으로 볼 때 한문에 쓰이는 글자의 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자전이 많이 편찬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낱글자에 대한 풀이를 한 형태였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 시 각각의 한자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제공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중한사전이라는 이중언어 사전이 출판될만한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점이다. 당시 중한사전이 출판되고 유통될 만큼의 대중적, 학술적인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본 세기에 이르러서야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이 출판된 이유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¹¹⁾

어쨌든, 근대 자전은 기본적인 글자의 뜻을 파악하고, 중국어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완전하나마 중국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에서 2001년 편찬한 『이태리어-한국어사전』을 말한다.



[그림 3] 자전류와 중국어 사전의 계보

자전이 이렇게 중국어 사전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선만신자전』에서도 중국어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한일선만신자전』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서론에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책의 저자 ‘이명철’과 중국음과 만주어음의 감수자 ‘문세영’이 모두 중국어학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중국어 교학 시 공구서(工具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며, 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한일선만신자전』을 편찬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동시대 다른 자전류와는 달리 중국음의 표준, 중국음의 표기 방식, 음운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총 16페이지 분량의 범례(凡例)중 절반에 가까운 8페이지 가량을 할애하여 중국음의 표준음에 대해 기술하고, 주음자모의 표기, 성모, 운모의 종류, 성조의 종류와 발음 방법을 설명하고, 주음자모와 한글로 표기한 중국어 전체 음절표를 실었다.

(1) 華音은 北平官話音을 標準으로 한 注音字母의 發音과 이에 對한 朝鮮文 譯音을 附加였고 其後에 陰(上平聲), 陽(下平聲), 上(上聲), 去(去聲)로 四聲을 表記하였는데 그 發音法을 說明하면 左와 같음.

(2) (ㄱ) 雙脣音(三字), ㄴ(버, 𨮒) (無氣), ㄷ(퍼) (有氣), ㅁ(머) (無氣)
 此 雙脣音은 爲先 上下脣을 合하여 氣息이 脣部에 充滿하자마자 脣을 開하는 音인데 此音에는 또 有氣 無氣의 別이 있나니 有氣는 脣을 強合하여 氣息이 充滿하였을때에 氣息을 急히 밖으로 내보낼것ियो 無氣는 脣을 輕開하고 나오는 氣息을 妨害하지 말도록 하는것이니 以下도 仿此니라.

(3)

尸×	出×	彳×	厶	尸	ㄱ	尸×	ㄴ×	ㄷ×	
우 書	우 朱	우 初	쓰 絲	즈 姿	츄 辭	무 木	부 卜	푸 撲	
尸×Y	出×Y	彳×Y	厶Y	尸Y	ㄱY	尸Y	ㄴY	ㄷY	Y
와 刷	와 茁	와 敎	싸 洒	짜 雜	찰 察	마 馬	빠 巴	파 怕	아 阿
尸×ㄱ	出×ㄱ	彳×ㄱ	厶ㄱ	尸ㄱ	ㄱㄱ	尸ㄱ	ㄴㄱ	ㄷㄱ	ㄱ
왜 帥	왜 12)	왜 揣	재 賚	재 在	채 菜	매 買	배 白	패 派	애 愛
○	○	○	厶ㄴ	尸ㄴ	ㄱㄴ	尸ㄴ	ㄴㄴ	ㄷㄴ	ㄴ
			싼 掃	잔 早	잔 草	만 毛	반 包	판 袍	안 傲
尸×ㄴ	出×ㄴ	彳×ㄴ	厶ㄴ	尸ㄴ	ㄱㄴ	尸ㄴ	ㄴㄴ	ㄷㄴ	ㄴ
왕 雙	왕 裝	왕 窓	쌍 桑	장 葬	장 蒼	망 忙	팡 邦	팡 胖	양 昂
尸×ㄷ	出×ㄷ	彳×ㄷ	厶ㄷ	尸ㄷ	ㄱㄷ	尸ㄷ	ㄴㄷ	ㄷㄷ	ㄷ
완 控	완 專	완 船	싼 三	잔 贊	잔 慘	만 滿	반 半	판 判	안 安
尸×ㄹ	出×ㄹ	彳×ㄹ	厶ㄹ	尸ㄹ	ㄱㄹ	尸ㄹ	ㄴㄹ	ㄷㄹ	ㄹ
웅 春	웅 中	웅 虫	쌍 僧	정 增	정 層	명 孟	팽 縹	평 朋	영 亨
尸×ㄴ	出×ㄴ	彳×ㄴ	厶ㄴ	尸ㄴ	ㄱㄴ	尸ㄴ	ㄴㄴ	ㄷㄴ	ㄴ
운 順	운 准	운 春	션 森	전 怎	전 筭	면 門	편 本	편 盆	언 恩
尸×ㄹ	出×ㄹ	彳×ㄹ	○	尸ㄹ	○	尸ㄹ	ㄴㄹ	ㄷㄹ	ㄹ
웨 水	웨 追	웨 吹	○	제 賊	○	메 美	베 北	페 陪	에 危
○	○	○	○	○	○	○	○	○	센
									예 耶
尸×ㄷ	出×ㄷ	彳×ㄷ	厶ㄷ	尸ㄷ	ㄱㄷ	尸ㄷ	ㄴㄷ	ㄷㄷ	ㄷ
워 說	워 卓	워 綽	써 蓄	저 則	저 冊	머 末	빠 波	퍼 破	어 俄
○	○	○	厶ㄹ	尸ㄹ	ㄱㄹ	尸ㄹ	ㄴㄹ	ㄷㄹ	ㄹ
			썩 搜	썩 走	썩 湊	머 毛	○	푸 剖	우 恆

(1)은 『한일선만신자전』이 근거로 하는 화음(華音), 즉 중국어음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다. 중국어음에 관한 기술은 보통 중국어 회화서에서 많이 등장하는데,¹³⁾ 저자는 자전의 범례에 이를 싣고 있다. (2)는 쌍순음(雙脣音)의 발음 방법에 대해 적은 부분으로, 이러한 기술 역시 일반적으로 중국어 회화서에서 등장한다.¹⁴⁾ (3)은 『한일선만신자전』에 등장하는 전체 음절표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당시 중국어의 모든 음절에 대해 주음자모, 한글로 표기하고 예자를 기록하였다. 위의 내용은 주로 중국어 회화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근대 자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는 이 책이 중국어를 학습을 위한 의도로도 편찬되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한음(漢音)’ 즉 중국음 뿐만 아니라 ‘만주음(滿洲音)’까지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주음’이란 일본이 1932년 만주지역에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쓰인 중국어의 어음으로, 동북지역의 방언음을 가리킨다. 『한일선만신자전』의 범례(凡例)에서는 만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滿洲音은 現在 滿洲國에서 使用하는 것을 表示 한 것이대 元來 滿洲에서 使用하는 中國語는 二個의 概念이 있으니 一은 北平官話 인 中國語이요, 一은 山東方言인 中國語인데 下流階級과 中流階

12) 식별 불가하다.

13) 『속성한어대성』에서는 “본 책은 완전히 官話 즉 북경어를 표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라고 하였고, 『지나어대해』에서는 “이 책은 지나 및 만주국의 표준어인 北京官話를 독학연구하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중국어음의 근거를 공통적으로 ‘북경음’으로 보았다는 특징이 있다.

14) 성모, 운모의 발음 방법과 명칭은 『한어독학(漢語獨學)』, 『한어지남(漢語指南)』, 『화어정선(華語精選)』, 『자습완벽 지나어집성(自習完璧 支那語集成)』, 『지나어대해(支那語大海)』, 『속성한어대성(速成漢語大成)』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모 ㄹ에 대해 『한어독학』에서는 “쉬는 리음과 같으나 리보다 輕히 獨하여 즉 영문의 R과 근사하다.”, 『한어지남』에서는 “서, 리어 합음, 권설음”, 『화어정선』에서는 “시, 이리之間音이니 輕脣而發音하는 자라”, 『자습완벽 지나어집성』에서는 “경미한 리음이니 영어음의 R과 同함.”이라고 설명하였다.

級에는 山東方言이 盛行되고 上流階級에는 北平官話가 一般이 되어 있다 그러나 北平官話와 山東語의 相遠은 若干의 音韻變化와 少數이 語彙가 다르다 大體에 있어 大差가 없는 고로 大書中에는 兩者의 語音이 同一한 것은 華音만 附하였고 그 發音이 다른 때에만 限하여 特히 「滿」이라 記入하였으니 讀者는 諒知하라.

여기서는 만주어를 산둥방언(山東方言)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산동인이 많았기 때문이다.¹⁵⁾ 당시 일제가 만주국을 세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만주어’를 표제로 하는 『만주어무사자통』, 『만주어강좌』, 『속성만주어자통』, 『만주어속성회화강의록합본』, 『만주어문답회화집』과 같은 회화서가 등장했으나, 만주음을 자전에까지 동시에 수록한 것은 『한일선만신자전』이 유일무이하다. 자전으로써 중국의 방언음까지 수록했다는 것은 저자의 중국어학 지식이 고도로 발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한일선만신자전』은 ‘華字’, ‘華滿’, ‘華’를 부가하여 중국어 안에서 해당 글자가 들어간 어휘의 용례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 명대(明代)에 동북의 요동(遼東)지역이 공식적으로 산둥성에 편입되면서, 산둥성 거주자의 이 지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산동인이 사용하고 있던 교료관화(膠遼官話)가 동북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동북지역의 방언과 교료관화의 접촉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鄒德文, 「歷史事件與東北方言的形成及其層次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제58권 제6기, 2018, 184-193쪽 참조.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당시 동북방언음을 산둥방언음과 동일시한 것으로 보이며, 『만주어자통』에서도 관련된 서술이 출현한다. 즉 “만주어로 말씀하면 그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경 관화이오 다른 하나는 산둥 방언의 계통인 고로 실제 만주에서 사용하는 말은 이상 두 가지의 계통이 정연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 관화는 현재 일부 계급에서만 사용하지마는 산둥 방언의 계통은 널리 만주 전체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만주어의 한 계통으로 산둥방언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서명 예자	『한일선만신자전』	『한일선 신옥편』	『정정증보 신옥편 (訂定增補 新玉篇)』	『신자전 (新字典)』	『국한영중일 신옥편 (國漢英中日 新玉篇)』
也	一.語助辭, 어조사 二.發語辭, 應也, -自無妨, 응당 三.云也, 이를 四.語完辭, 말끝을 [華·滿] 一.也是, 또한	잇기(야), 決定語意, 疑問用字, 是也	잇기(야), 語之餘發語 辭	語之餘 잇기, 라, 發語辭, 應也, 응당, 云也이를	語之餘 어조사(야), 發語辭또 (야)
份	一.文貌, 빛날 二.彬古字 [華·滿俗音][ㄷ ㄴ 陰陰]. -兒例如這份兒, 那份兒, 몫	彬古字	빛날(빈), 文質備, 彬古字	彬古字	文貌 빛날(빈), 彬古字
殼	一.弓矢持滿, 활잔뜩당길 二.句通 [華]能-, 심에너넉할	전통(구) 箭筒	좁통(구) 弓矢持滿, 句通	弓矢持滿 활당길	弓矢持滿 당길(구)
的	一.明也, 밝을 二.實也, 적실할, 꼭그리할 三.射質, 관혁 四.目-, 표준할, 목적할 [華·滿] 俗作「之」字用. 如我的, 他的, 又作「者」 字用, 如好的, 醜的	밝을(덕) 明也, 鮮明, 적실할(덕) 實也, 관혁판(덕) 射板, 端正也, 標準	덕실(덕) 明也, 實也, 射候中	明也, 밝을, 實也, 꼭그리할, 덕실할, 射質, 관역	明也밝을(덕), 實也 덕실할(덕), 射候中 관혁판(덕), 語助辭 어조스(덕)

위의 ‘也’, ‘份’, ‘殼’, ‘的’에는 중국어 어휘 안에 해당 글자가 들어가는 어휘나 구, 용법에 관한 부가 설명이 출현한다. ‘也’는 중국어에서 이 자체로 “...도 또한” 이라는 뜻을 갖지만, 여기에서는 ‘是’를 예로 들고 ‘또한’이라고 설명하였다. ‘份’은 다른 자전에서 ‘빛나다’, 혹은 ‘彬’의 옛 글자라고 나와 있으나 『한일선만신자전』 중국어의 ‘몫’이란 뜻과 이 뜻으로 쓰인 예시 구가 등장한다. ‘殼’는 ‘활통(箭筒)’ 혹은 “활을 최대한 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중국어에서 ‘能殼’ 안에 쓰인다고도 나와 있는데, 이는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의 ‘能够’

와 동일하다. ‘的’은 기타 자전에서 ‘밝다’, ‘적실하다’, ‘과녁’의 뜻으로 쓰여있으나,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之’, 즉 ‘...의’로 쓰인다고 언급하였고 ‘我的’, ‘他的’와 같은 예를 들었는데 이는 ‘的’이 중국어에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者’, 즉 ‘...한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예로 ‘好的’, ‘醜的’을 들었는데 ‘的’이 중국어에서 명사화할 때 쓰이는 조사의 용법을 기술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중국어 안의 어휘 예시, 용법을 기록한 것은 『한일선만신자전』이 기타 근대 자전과는 차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일선만신자전』은 한자의 음과 뜻을 파악하는 ‘자전’으로써의 용도 이외에도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용도도 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각 글자에 대한 어휘 풀이라는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어 어휘에 있어서 다른 용례를 부가하였고, 어음에 있어서는 당시 표준음인 북경관화음 이외에도 만주음으로 불리는 동북방언음까지 수록하였다. 이렇게 『한일선만신자전』은 근대 자전 중에서도 중국어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여 중국어 사전적 역할을 십분 꾀한 자전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Ⅲ. 『한일선만신자전』의 음운 표기 체계

『한일선만신자전』에는 ‘중화음(華音)’의 음운 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범례에 나타나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중화음(華音)’이란 ‘북평관화(北平官話)’음, 즉 당시의 북경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북경관화의 성모 체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분류	내용			
雙脣音	ㄱ 버, 뻐 (無氣)	ㄲ 퍼 (有氣)	ㄴ 머(無氣)	
脣齒音	ㄷ 빅, 띠	ㄸ 뵤		
舌尖音	ㄴ 더, 떠 (無氣)	ㄸ 터 (有氣)	ㄹ 너	ㄺ 러
舌後音, 舌根音	ㄺ 거, 꺼 (無氣)	ㄻ 커 (有氣)	ㄼ 어	ㄽ 허
舌前音	ㄷ 지 (無氣)	ㄸ 치 (有氣)	ㄹ 찌	ㄺ 늬
舌葉音	ㅈ 찌 (無氣)	ㅉ 찌 (有氣)	ㅊ 찌	ㅊ 시
舌齒音	ㅊ 쯔 (無氣)	ㅊ 쯔 (有氣)	ㅌ 쓰	

저자는 24개의 성모를 雙脣音, 脣齒音, 舌尖音, 舌後音(또는 舌根音), 舌前音, 舌葉音, 舌齒音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모를 주음자모(注音字母)로 표기하였고, 각각의 성모에 해당하는 한국어 발음과 유기음, 무기음 여부를 병기하였다.

발음 방법에 따른 성모의 분류 명칭 중 雙脣音, 脣齒音, 舌尖音, 舌根音, 舌葉音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의 명칭과 일치하다. 그러나, tɕ, tɕ', ɕ를 舌前音, ts, ts', s를 舌齒音으로 지칭한 것은 현대 표준 중국어 뿐만 아니라 전통 음운학 저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책만에 독특한 명칭이다. 일제강점기 교재는 발음 위치에 따른 성모 분류 명칭에 있어 조금씩 상이함을 보인다. 먼저, 『지나어집성』의 경우 k, k', x성모의 글자에 대해 『한일선만신자전』에서와 같이 ‘설근음’으로 지칭하였으나, 『속성한어대성』에서는 k, k'성모의 글자를 ‘아음’¹⁶⁾, x성모의 글자를 ‘후

16) “牙中으로 出ᄃᆞ는 음, ㅈ, 카, ㅊ, ㅊ”라고 설명하였다.

음'으로¹⁷⁾ 지칭하였다. 다음으로, t, t', n, l성모의 글자를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설첨음'으로 지칭하였으나, 『중어대전』에서는 l성모에 대해 '반후음'으로 지칭하였으며,¹⁸⁾ 『속성한어대성』에서는 n성모를 '설두음',¹⁹⁾ l성모는 '반후음'으로 지칭하였다.

각각의 성모에 대한 주음자모와 한글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p, t, k성모에 대해 한글로 '버', '빠'와 '더', '떠', '거', '꺼'와 같이 평음과 경음으로 표기하였다. 김억조(2019)는 중국어 성모와 한국어 자음의 대응 실험에서 한국인이 중국어 성모 k의 2성 혹은 3성 글자는 'ㄱ'로, 1성이나 4성은 'ㄴ'으로 듣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책에서 무성 무기음을 평음과 경음으로 모두 표기한 것은 당시에도 이와 같이 성조에 따라 전사한 음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표기된 상황을 살펴보면, 1성과 4성의 글자의 성모에 경음을 쓴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丁'(陰)은 '땡', '代'(去)는 '때', '乖'(陰)은 '꽤'로 되어 있으나, '不'(去)는 '부'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은 f성모에 해당하는 ㄸ에 대해, 이 책에서는 "“뵈", "뵈"인데 편의상 '애'로 表함."이라 언급하였다. 조선시대 역학서 안에서 중고 非모와 敷모는 줄곧 순경음 비음(ᄃ)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회화서 안에서는 대부분 '애'와 같이 ㅇ계 합용병서로 성모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한어지남』, 『화어정선』, 『지나어집성』, 『속성한어자통』에서 그러하며, ²⁰⁾ 『지나어대해』와 같

17) “喉頭로서 出ᄃ는 음, 하, 화, 휘”라고 설명하였다.

18) “혀를 입천정 안에 대어서 ㄹ리음을 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19) “舌掌을 動ᄃ여 出ᄃ는 음, 나, 놉, 뉘”라고 설명하였다.

20) 이러한 방식의 합용병서는 두 자음 사이의 음 혹은 합쳐 발음하는 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어지남』에서는 “애, 바아 합음순치성, 뵈, 버어합음 순치성.”, 『화어정선』에서는 “뵈, 부우지간음이니 순치간으로 발음하며...”, 『지나어집성』에서는 “애, 바, 파의 間音이니 先히 바음을 微發하고 終에 파음으로 止함.”, 『속성한어자통』에서는 “ᄃ, 파 輕清, FA의 음이다.”라고 하였다. 『지나어집성』과 『속성한어자통』에서 '애'를 'ㅇ'과 'ㅂ'사이의 음, 혹은 합음으로 설명하지 않고 'ㅂ'과 'ㅍ' 혹은 'ㅎ'과 'ㅍ' 사이의 음(혹은 합음)으로 설명

은 경우에는 ‘ㄹ’로 표기하기도 하였다.²¹⁾ 세 번째로 万는 여기에서 “‘ㄹ’ 단 지금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되어 있다. 万는 중고 奉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성 무기음 성모에 해당한다. 奉모는 『중원음운』이 반영하는 근대 중국어에서 이미 소실되었으며,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 『화음계몽언해』에서 이미 非母와 동일한 ‘빙’로 표기되었다. 네 번째로 兀는 중고 疑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대 중국어에서 소실되었다. 여기에서도 “지금은 使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섯 번째로 丁는 ㄷ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ㄷ’로 표기하였지만 편의상 ‘시’로 기록한다고 언급되어 있다.²²⁾ 여섯 번째로 广는 한국어로 ‘ㄴ’로 표기되어 있으며, “此 舌前音은 舌前 即 舌面과 硬口蓋를 强하게 서로 接하고 그 中間으로 氣息을 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설면음으로, ㄴ에 해당한다. 성모 중에서 万, 兀, 广는 주음자모 제정 시에는 존재하였으나, 1932년 『국음상용자휘』의 편찬을 시작으로 표준음을 북경음으로 기반으로 하면서 삭제되었다. 일곱 번째, 이 책에서 舌前音, 舌葉音, 舌齒音은 각각 한국어의 평음(ㅅ, ㅆ, ㅈ), ㅇ계 합용병서, 각자 병서하는 것으로 썼다. 이 중에서 舌葉音에 해당하는 ㅇ계 합용병서는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 보편적으로 쓰인 표기법으로, 두 자음 사이의 음 혹은 합음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다.²³⁾ ‘ㅆ’, ‘ㅆㅆ’, ‘ㅆㅆ’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舌齒音을 표기하는데 일관되게 쓰이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교재에서는 ‘ㅅ’, ‘ㅆ’, ‘ㅈ’ 혹은 ‘ㅅㅅ’, ‘ㅅㅅ’와 혼기되고 있다.²⁴⁾ 마지막은 중고 日모에 속하는 日의 표기이다. 여기서는 ‘ㄷ’으

한 것이 특징적이다.

21) “ㄹ, 파와 하 사이의 음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2) 『지나어대해』에서는 “ㄹ, 샤와 하의 중간음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3) 『한어독학』에서는 “ㅆ, 아사 간의 음이다.”, 『한어지남』에서는 “ㅆ, 수위 합음, 唇齒性”이라 하였고, 『화어정선』에서는 “ㅆ, 즈스之間音”, 『지나어집성』에서는 “ㅆ, 사자의 間音”이라 하였다. 즉, ㅇ과 후행하는 자음 사이의 음 혹은 합음이라고도 하였고, ㅅ과 두 번째로 오는 자음 사이의 음으로도 설명하였다.

24) 『화어정선』에서는 ‘主’를 ‘주’로 ‘炸’를 ‘짜’로, ‘送’을 ‘송’으로 표기하였으며, 『한어대성』에서는 ‘兆’를 ‘쟈’로, ‘總’을 ‘똥’으로, ‘菜’를 ‘치’로, ‘倉’을 ‘쌍’으로,

로 나타나 있다. ‘△’, 여린미음은 이미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에서부터 중고 日모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도 현대 표준 중국어의 ㄹ성모 표기에 △를 쓰고 있으며, 25) 일부 ‘ㄹ’을 쓰고 있는 책도 있다.26)

『한일선만신자전』의 성모는 현대 표준 중국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미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ㄷ, ㅈ를 제외하면 모두 22개로 이루어져 있다.27) ㄹ성모의 표기에 기타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처럼 ‘ㄹ’을 쓰고 있다. 그러나 舌面音, 舌尖後音, 舌尖前音표기가 기타 일제강점기 회화서가 혼기된 것과는 달리 ‘ㄴ’, ‘ㄷ’, ‘ㄱ’ 평음, ㅇ합용병서, 각자병서로 정련되게 표기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모 체계를 살펴보겠다.

분류	내용							
	一(이)	ㄨ(우)	ㄴ(위)	ㄹ(아)	ㄷ(어)	ㄷ(에)	ㅅ(예)	
운모	一(이)	ㄨ(우)	ㄴ(위)	ㄹ(아)	ㄷ(어)	ㄷ(에)	ㅅ(예)	
복운모	ㄹ(애)	ㄴ(에)	ㄷ(안)	ㄹ(안)	ㄷ(언)	ㄷ(양)	ㄷ(영)	
특별운모	ㄹ(얼)							

『한일선만신자전』의 운모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운모들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단운모에 해당하지만, 이 책에서는 ‘운모’라고만

『한어자통』에서는 ‘坐’를 ‘취’로, ‘子’를 ‘으’로, ‘菜’를 ‘치’로, 『중국어자통』에서는 ‘在’를 ‘재’로, ‘雜’을 ‘짜’로 표기하였다.

- 25) ‘△’에 대해 『한어독학』에서는 “쉬는 리음과 같으나 리보다 輕히 獨하야, 즉 영문의 R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한어지남』에서는 “서, 리어 슴핀 권설음, 쇠, 콧와 슴핀 捲舌音”이라 하였고, 『화어정선』에서는 “시, 이리之間音이니 輕屑而發音하는 자라.”라고 하였고, 『지나어집성』에서는 “경미한 라음이니 영어음의 R음과 同함.”라고 설명하였다.
- 26) 『만주어속성회화강의록합본』이나 『일선만최속성만주어자통』에서는 ‘日’을 ‘예’로 표기하였다.
- 27) 비록 ㄹ에 대해서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없었으나, 복경음을 기준으로 한 『국음상용자휘』(1932)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한일선만신자전』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미 쓰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칭하였다. 또한 儿을 ‘특별운모’, 나머지 운모를 ‘복운모’라고 지칭한 것이 현대 표준 중국어와는 다르다.

먼저 단운모를 살펴보면, 一은 i, ㄨ는 u, ㄴ는 ü, ㄹ는 a, ㄷ는 o, ㄸ는 e, ㅅ는 ê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ㄷ에 대해 “지금은 使用하지 아니함”이라고 언급하였다. ㄷ는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ㄹ운모에 해당하는데,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이 운모를 갖는 글자에 대해서 모두 ㄷ로 표기하고 있다. ㄷ는 ㄷ에서 변화된 것이며, o, ㄹ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何’, ‘可’, ‘禾’ 등은 운모가 한글로 ‘ㄴ’로 쓰여 있지만, 주음부호로는 ㄷ로 쓰여 있다. 근대 후기 ‘ㄴ’가 중고 비원순모음의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음부호인 ㄷ 즉 o의 음가와는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ㄸ, ㄹ, ㄺ, ㄻ에 대해서 두 모음이 합음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ㄸ(애이)를 略하여 (애), ㄹ(에이)를 略하여 (에), ㄺ(아오)를 略하여 오, ㄻ(어우)를 略하여 (우)”라 하였다.

다음은 성조 체계이다. 『한일선만신자전』 역시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사성(四聲)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陰平聲(上平聲 又は 第一聲)’, ‘陽平聲(下平聲 又は 第二聲)’, ‘上聲(第三聲)’, ‘去聲(第四聲)’로 명명하였다.²⁸⁾ 또한, 각 성조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陰平聲(上平聲)은 發音이 平穩하여 音의 長短強弱이 具無하고 단지 天生의 聲帶를 따라 平坦하게 發하는 音이니 마치 侍下人이 長上에게 對하여 答應하는 ‘네’와 같음.”, “陽平聲(下平聲)은 陰平聲과 近似하나 단지 그 末音을 조금 揚하여 發하는 音이니 마치 疑問을 發할 때에 ‘뭐야’라하는 末音 ‘-야’와 같음.”, “上聲은 發音이 猛烈長大하여 聽者의 鼓膜에 刺戟을 強하게 하는 者.”와 같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陰平聲은 높낮이의 변화없이 일정하게 발음하며, 陽平聲은 뒤 끝을 올리는 발음이다. 上聲의 발음에 대한 묘사는 ‘맹렬장대하다.’, ‘고막에 자극을 준다.’고 다소 추상적인 묘

28) 또한 “我 朝鮮 作詩家 參考하는 奎章全韻에 掲載된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은 아님”라 하여 중고의 四聲 체계와는 다를 것을 언급하였다.

사만 되어 있을 뿐 높낮이 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언급은 없다. 이러한 묘사는 『한어지남』이나 『화어정선』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29)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등장하는 『사성분법(四聲分法)』의 내용인 “상성은 높고 맹렬하며 강하다(上聲高呼猛烈強)”는 표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모와 운모에 따른 한글 표기를 살펴보겠다. 먼저 성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	p´	m	f
ㅂ, ㅃ	ㅍ	ㅁ	ㅍ
t	t´	n	ㄴ
ㄷ, ㄸ	ㅌ	ㄴ	ㄴ
k	k´	x	
ㄱ, ㄲ	ㅋ	ㅎ	
te	te´	e	
ㅈ	ㅊ	ㅅ	
ts	ts´	s	
ㅉ	ㅊ	ㅅ	
tʃ	tʃ´	ʃ	ㄷ
ox	ox	ox	△

p, t, k는 대부분 1, 4성에서는 경음으로, 2, 3성에서는 평음으로 표기 되어 있다. 또한 te, te´, e와 ts, ts´, s, tʃ, tʃ´, ʃ, ㄷ는 이 책에서 각각 평음, 각자병서, ○계 합용병서로 나타난다.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운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9) 성조의 특징에 대해 『한어지남』에서는 “聲之上而重者上平也, 聲之下而輕者下平也, 聲之上而猛烈者上聲也, 聲之去而哀遠者去聲也.”, 『화어정선』에서는 “如平聲字은 平道莫低昂이요, 上聲者은 高呼猛烈強이요, 去聲者은 分明哀遠道요, 入聲者은 短促急收藏이니 然而說話時에 無入聲也라. 故로 入聲字는 分出於上下平聲호니 확자유의해라.”라고 언급하였다.

종류 四呼	開口	齊齒	合口	撮口
운모	ɿ, ʮ	i	u	y
한글 표기	ㅡ, ㅣ	ㅣ	ㅜ	ㅠ
운모	a	ia	ua	-
한글 표기	ㅏ	ㅑ	ㅓ	
운모	o		uo	-
한글 표기	ㅗ		ㅛ	
운모	ɤ	ie	-	ye
한글 표기	ㅜ	ㅟ		
운모	ai		uai	-
한글 표기	ㅝ		ㅞ ³⁰⁾	
운모	ei	-	uei	-
한글 표기	ㅞ		ㅟ	
운모	au	iau	-	-
한글 표기	ㅓ	ㅕ		
운모	ou	iou	-	-
한글 표기	ㅜ	ㅠ		
운모	an	ian	uan	yan
한글 표기	ㅏ	ㅑ	ㅓ	ㅠ
운모	ən	in	uən	yn
한글 표기	ㅓ	ㅣ		
운모	aŋ	iaŋ	uaŋ	-
한글 표기	ㅏ	ㅑ	ㅓ	
운모	əŋ	iŋ	-	-
한글 표기	ㅇ	ㅇ		
운모	-	-	uŋ	yŋ
한글 표기			ㅇ	ㅇ
운모	ər			
한글 표기	얼			

30) 14쪽에 나열된 한글 운모의 예자 중 ‘拐’만 운모가 ‘ㅞ’로 적혀있는데, 오기인

『한일선만신자전』의 운모 표기는 해당하는 운모에 대해 오로지 그 대응되는 한글 표기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는 ㄱ을 ‘ㄱ’, ‘ㅣ’, ‘-ㅣ’로, ㅋ을 ‘ㄱ’, ‘ㅋ’로, ai를 ‘ㅣ’, ‘ㅣ’로, ei를 ‘ㅣ’, ‘ㅣ’, ‘-ㅣ’로, en을 ‘ㄴ’, ‘ㄴ’, ‘ㄴ’으로 표기하는 등 한 운모에 대한 한글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한글 표기 상의 혼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한일선만신자전』의 체계의 통일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다만, 위 한글 표기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이 한글 표기와 주음자모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ㄱ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는 운모 o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주음자모 사용 초기에는 ㄱ가 o와 ㅅ을 표기하는데 모두 사용되어 1920년 ㄱ로부터 ㄱ가 분리되어 ㄱ는 質, 月, 陌, 職, 緝韻 입성자를 표기하는데 사용되고, ㄱ는 歌, 哿, 箇, 覺, 曷, 藥, 合韻의 운모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 특이한 것은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ㄱ에 대해 일괄적으로 ‘-ㅣ’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破(ㅍ)’, ‘波(ㅂ)’와 같은 果攝字와 ‘特(티)’, ‘德(더)’과 같은 曾攝 입성자에 대해 모두 ㄱ, ‘-ㅣ’로 쓰고 있다. 이 책은 이미 ㄱ로부터 ㄱ가 이미 분리된 후인 1937년에 편찬된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ㄴ’과 같은 梗攝 ㅅㅁ 三等字나 ‘用’, ‘窮’과 같은 通攝 ㅅㅁ 三等字로 중고 시기에는 y개음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iuᄃ운모로 읽히는 것이다. 『화어정선』에서는 ‘ㄴ’이 ‘쑹’으로, 『한어대성』에서는 ‘用’이 ‘용’으로, 『한어자통』에서는 ‘ㄴ’이 ‘슌’으로 읽히고 있어 이미 y개음에서 변화한 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일선만신자전』에서만 y개음을 보존하고 있는 ‘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것으로 추정된다.

31) 서론에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책의 저자 이명철은 저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운모 표기에 있어서 혼기가 나타나지 않고 통일성, 규칙성을 보이는 것은 저자의 수학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 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IV. 『한일선만신자전』의 음운 특징

『한일선만신자전』에 표기된 중국어 음운 체계는 ‘北平官話音’, 즉 당시의 북경관화음과 ‘滿音’, 즉 당시의 만주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관화음과 만주음이 동일할 경우에는 만주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고, 서로 상이할 경우에만 만주음을 「滿」이라 하여 별도로 표기하였다.³²⁾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책이 수록한 관화음과 만주음의 음운 특징이 어떠한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관화음의 음운 특징

『한일선만신자전』의 음운 체계는 이미 현대 표준 중국어와 대동소이하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모 및 운모가 현대 표준 중국어와 매우 비슷하며, 일부 글자의 성모와 운모, 성조의 표기에 있어서 지금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1. ‘榮’, ‘容’, ‘融’의 성모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榮’, ‘融’, ‘容’, ‘鎔’은 성모 ㄹ로 읽힌다. ‘融’, ‘容’, ‘鎔’는 通攝 合口 三等 以母, ‘榮’은 梗攝 合口 三等 云母자로, 음운 변화상 영성모로 읽히는게 맞으나 오늘날 ㄹ로 읽히는, 예외적인 변화에 속하는 글자라 할 수 있다. 이 글자들은 『국음자전』이나 『경음자휘』와 같은 민초 시기 중국 자전에서는 모두 ㄹ×ㄴ 혹은 JUNG으로 표기

32) “滿洲音은 北平官話音이 끝난 後에 「滿」이라 記入하고 其下에 한글로 表記한 音이니 北平官話音과 滿洲音이 同一한 者는 官話音으로만 記入하고 灣音은 別로 記入하지 아니하였은즉 換言하면 「滿」字를 記入하지 아니한 者는 北平音과 滿音이 同一한 者로 看做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되었는데, 당시 성모가 이미 ㄱ과 같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는 『속성한어자통』 ‘榮’이 ‘송’, ‘容’ ‘용’, 『중어대전』에서는 ‘榮’이 ‘송’, ‘容’이 ‘송’, 『지나어집성』에서는 ‘容’이 ‘송’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融’을 제외한 나머지 ‘容’, ‘榮’이 모두 ‘ㄴㅇ’, ‘ㅇ’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한일선만신자전』의 표기는 중고 성모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전이 동시대 중국음을 기록한 대표적인 저서인 『국음자전』이나 『경음자휘』의 음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2. 通攝字에 합류된 曾, 梗攝字

『중원음운』에는 ‘兄’, ‘橫’, ‘永’과 같은 喉牙音字가 東鍾운과 庚靑운에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명대의 운서 『운략이통(韻略易通)』에서는 이들이 모두 庚靑운에만 출현하고, 『운략회통(韻略回通)』에서는 모두 東洪운에 출현한다. 『한일선만신자전』에서 曾, 梗攝 脣音과 喉牙音字의 운모는 위 운서들과 모두 상이한 ‘평’로만 나타난다. 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兄 씩 榮 윙 永 윙 瑩 윙

이들의 운모는 본래 iuiŋ과 같으며 개음인 u가 주요모음에 영향을 미쳐 주요모음이 o로 변화하였다. 즉, i>o/u_ŋ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兄’, ‘凶’이 같은 주요모음으로, ‘榮’, ‘容’이 같은 주요모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초에는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서 『화어정선』, 『속수한어대성』, 『중국어자통』, 『지나어대해』에서는 ‘兄’이 ‘用’과 같이 ‘ㅇ’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운모가 ‘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o운모의 글자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破’, ‘波’, ‘末’이 ‘冊’, ‘則’, ‘齋’, ‘得’, ‘特’, ‘德’과 같이 ɾ운모와 동일하게 운모가 ‘ㄱ’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중국어 회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화어정선』에서는 ‘末’이 ‘머’로, 『한어대성』에서는 ‘漠’이 ‘머’로, 『한어자통』과 『중국어자통』에서는 ‘坡’가 ‘빠’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초엽 국어에서 ‘ㄱ’는 비원순 중모음, ‘ㄴ’은 원순 중모음으로 원순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한편, ‘破’, ‘波’, ‘末’와 같은 果攝, 山攝의 운모에 대해 楊耐思(1981)는 『중원음운』 시기 o운모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주목할만한 것은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이 글자들의 관화음과 만주음의 발음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만주음에서도 ‘破’, ‘波’, ‘末’는 운모가 ‘ㄱ’로 나타나있는데, 만주어를 표제로 한 『만주어속성강의록합본』에서는 ‘沫’이 ‘머’, 『만주어문답회화집』에서는 ‘坡’가 ‘퍼’, 『일선만최속성만주어자통』에서는 ‘坡’가 ‘퍼’, 『무사속성일선만주어자통』에서는 ‘波’가 ‘빠’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동북지역인 심양(瀋陽), 장춘(長春), 파언(巴彥)에서는 ‘波’, ‘破’, ‘婆’의 운모가 ɾ로 읽힌다(錢曾怡 2010) 따라서 만주어를 표제로 한 회화서는 당시의 만주국의 방언, 즉 동북방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운모가 ɾ에 가까운 ‘ㄱ’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북경음을 기반으로 한 관화음에서도 이들의 운모가 ‘ㄱ’로 표기되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4. 성조 이득

『한일선만신자전』에는 현대 표준 중국어와 다른 성조로 읽히는 글자가 다수 등장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복수의 성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전의 관화음은 북경음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북경음을 기

반으로 한 『중원음운』, 『이씨음감』, 『음운봉원』 및 민초 시기 『국음자전』에 나온 성조를 일부 글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예자	『한일선만신자전』	『광운』	『중원음운』	『이씨음감』	『음운봉원』	『국음자전』	현대 표준 중국어
危	양평, 음평	평성	양평	-	양평	양평	음평
黑	음평, 상성(xei) 거성(xx)	평성, 입성	상성	음평, 상성	음평, 거성	음평, 상성(xei) 거성(xx)	음평
揉	양평, 상성, 거성	평성, 상성, 거성	양평, 상성	거성	양평	양평	양평
連	양평, 상성	평성, 상성, 거성	양평	-	양평	양평, 음평	양평
淋	양평(lin), 음평(lyn)	평성, 거성	양평, 거성	-	양평, 거성	양평, 거성 (lin), 양평(lyn)	양평
捫	음평	평성	양평	음평	양평	양평	양평
骨	양평, 상성	입성	상성	양평, 상성	양평, 상성	상성, 양평, 음평	상성
把	상성, 거성	평성, 상성, 거성	상성	-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選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입성	상성, 거성	상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掃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상성	상성, 거성	상성
導	상성, 거성	거성	거성	-	거성	상성, 거성	상성

첫 번째, 危는 『중원음운』, 『음운봉원』, 『국음자전』에서는 모두 양평으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음평과 양평으로 나와 있으며, 오늘날에는 음평으로만 읽힌다. 두 번째, 黑은 역대 운서에서 모두 성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국음자전』과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성조가 동일하게 나와있다. 즉, xei로 읽을 때는 음평과 상성으로

발음되며, *xx*로 읽힐 때는 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는 특별히 *xx*, 거성에 대해 ‘독음(讀音)’이라 표기하였는데, 이는 문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대까지도 입성자를 문언음에서 거성으로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독음’은 이와 관계가 있다. 세 번째, ‘揉’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가장 많은 이독을 갖고 있는데, ‘부비다’, ‘부드럽다’는 뜻을 가질 때는 양평, ‘나무 구부리다’란 뜻을 가질 때는 상성, ‘일을 천천히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는 양평으로만 읽힌다. 네 번째, ‘連’은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연잇다’, ‘잇대다’, ‘합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는 양평, ‘머물다’,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상성으로 읽힌다. 『국음자전』에서는 ‘머물다’, ‘어렵다’의 뜻은 등장하지 않으며, ‘연잇다’, ‘잇대다’, ‘합하다’란 뜻으로 쓰일 때 양평으로도 읽히고, 음평으로도 읽힌다. 다섯 번째, ‘淋’은 『중원음운』과 『음운봉원』에서 양평과 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 역시 그러한데, 각각의 성조에 대응하는 운모가 다르다. *lin*으로 읽힐 때 양평, 거성을 갖으며, *lyn*으로 읽을 때는 양평으로만 읽힌다. 『한일선만신자전』에서도 ‘린’과 ‘ړ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lin*, 후자는 *lyn*에 대응한다. ‘린’으로 읽힐 때는 양평, ‘ړ린’으로 읽힐 때는 음평으로 읽히지만 대응하는 뜻에 차이가 없다. 한편, 『국음자전』에서는 ‘물 대다(以水沃之)’의 뜻일 때는 *lin*, 양평, ‘거르다(瀦)’란 뜻을 나타낼 때는 *lin*, 거성, ‘물 주다(謂雨水澆濕)’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lyn*, 양평으로 읽힌다. 여섯 번째, ‘捫’은 『한일선만신자전』과 『이씨음감』에서는 음평, 나머지 책에서는 양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글자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撫持, 어루만지다, 더듬다’, ‘摸也, 잡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평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음자전』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풀이되어 있으나 양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곱 번째, ‘髒’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상성으로만 발음되나, 『이씨음감』, 『음운봉원』,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양평과 상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음자전』에서는 여기에 음평의 발음도 추가되어 있다. 『한일선만신자전』에서

는 이 글자가 ‘뻐’, ‘요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양평과 상성으로 모두 읽힐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는 ‘뻐’의 의미로 읽힐 때는 상성, ‘骨頭’, ‘骨力’으로 읽을 때는 양평으로, ‘骨朵兒’로 읽을 때는 음평으로 읽힌다고 표기되어 있다. 여덟 번째, ‘把’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잡다’, ‘자루’, ‘지키다’의 뜻을 갖고 있으며 상성과 거성으로 읽힌다. 그러나, 『국음자전』에서는 ‘잡다(持, 執)’, ‘지키다(看守)’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상성으로 읽히고, ‘자루(柄)’의 뜻으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읽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홉 번째, ‘選’은 『한일선만신자전』에서 ‘가리다’, ‘보내다’, ‘세다’, ‘재물’, ‘화폐’, ‘좀 있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상성, ‘전관(銓官)을 뽑다’, ‘도래춤’의 뜻으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도 ‘가리다’, ‘화폐’의 뜻으로 쓰일 때는 상성, ‘전관(銓官)을 뽑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읽힌다고 나와 있다. 열 번째, ‘掃’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쓸다’, ‘상투’의 뜻으로 쓰일 때 상성과 거성으로 모두 읽힌다. 『국음자전』에서도 ‘쓸다’의 뜻으로 쓰일 때 상성으로 읽힌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빗자루(掃帚)’의 뜻이 새롭게 나타나는데, 이 때 거성으로 읽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선만신자전』에서 ‘導’는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상성, 거성으로 모두 읽힐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는 위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 모두 거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성으로도 읽히지만 이는 ‘어음(語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음자전』에서 어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구어 안에서의 복수음을 일컫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이 글자는 상성으로만 읽힌다.

1-5. 속음(俗音)의 특징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속음’ 표기는 첫 번째, 한국한자음 부분이고,³³⁾ 두 번째, 중화음, 즉 관화음의 성조, 세 번째 중화음의 성, 운모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서 출현한다. 본 연구는 이 책의 한국한자음에 대한 내용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한자음에 대한 속음 표기를 제외한 성조와 성, 운모에 대한 부분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중화음에 대한 속음표기는 성, 운모보다 성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의 화음의 성조는 화음 표기에 이어 성조를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속음의 성조가 다를 경우에는 옆에 ‘俗’이라 쓰고 성조를 병기하였다. 예를 들어 ‘几’는 ‘지_上俗陰’, ‘刃’은 ‘신_陽俗去’, ‘句’는 ‘쥬_陽俗去’와 같다. 『한일선만신자전』이 편찬된 민초시기에는 『국음자전』, 『경음자휘』가 있다. 이외에 중국 역대 운서인 『광운』, 『중원음운』, 『홍무정운』과도 비교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예자	『한일선만신자전』		『광운』	『중원음운』	『홍무정운』	『국음자전』	『경음자휘』	현대 표준 중국어
	본 성조 ³⁴⁾	俗音 성조						
几	상성	음성	상성	상성	상성	상성, 음성 (어음)	음성	음성, 상성
刃	양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句	양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咄	상성	음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음성, 거성	거성
咏	거성	상성	거성	-	거성	상성	상성	상성
垆	음성	상성	평성	-	평성	음성	상성	음성
垢	상성	거성	상성	상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坦	양성	상성	상성	상성	상성	상성	상성	상성
奉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夯	거성	음성	-	상성	-	음성	음성	음성
妓	상성	거성	거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33) 『한일선만신자전』에서 한국한자음에 대한 속음 표기는 ‘俗’뒤에 복수음을 표기하는 형식으로 쓰여있다. 예를 들어 ‘黷’은 ‘탈_俗철’, ‘攪’은 ‘괵_俗화’, ‘擷’은 ‘혈_俗힐’, ‘擻’은 ‘식_俗시’, ‘撫’는 ‘부_俗무’로 표기한 것과 같다.

예자	『한일선만신자전』		『광운』	『중원 음운』	『흥무 정운』	『국음 자전』	『경음 자휘』	현대 표준 중국어
	본 성조 ³⁴⁾	俗音 성조						
屨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상성	거성
巨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帑	음성	상성	평성	-	평성	양성	상성	상성
悍	상성	거성	거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慨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상성
戶	상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거성
扈	상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拌	음성	거성	상성	-	평성	거성	거성	거성
捕	거성	상성	거성	거성	거성	상성, 거성	상성	상성
紱	상성	거성	상성	-	-	거성	거성	거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일선만신자전』의 본 성조는 『광운』, 『중원 음운』, 『흥무정운』의 성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속음의 성조는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의 성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한일선만신자전』의 본 성조의 음평과 양평을 모두 ‘평성’으로 보고 비교하였을 때, 『광운』과 본 성조의 성조가 일치하는 확률은 70%(14/20), 『중원 음운』과 본성조의 성조가 일치하는 확률은 26.6%(4/15), 『흥무정운』과 본 성조의 성조가 일치하는 확률은 78.9%(15/19)였다. 또한, 『국음자전』과 속음의 성조가 일치하는 확률은 85.7%(18/21), 『경음자휘』와 속음의 성조가 일치하는 확률은 100%(21/21)이었다. 『광운』, 『중원음운』, 『흥무정운』과 『한일선만신자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은 『중원음운』을 제외하고 입성자가 평성, 상성, 거성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변화된 이후의 성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음의 성조가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와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근

34) 속음에서 다른 성조가 병기된 경우, ‘관화음’, ‘성조’, ‘俗’, ‘성조’ 순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화음 다음에 나오는 성조를 ‘본 성조’라 명명하겠다.

대 이후의 성조 변화의 주요 음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성조와 속음의 성조가 차이가 나는 글자 중 『광운』, 『중원음운』, 『홍무정운』의 성조와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의 성조를 비교했을 때, ‘奉’, ‘巨’, ‘扈’는 『광운』, 『중원음운』, 『홍무정운』에서 상성으로 나타나지만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에서는 거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성음 상성자가 근대에 무성음 거성으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한일선만신자전』의 본 성조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변화하기 이전의 성조를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속음 중 성모 혹은 운모의 차이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첫 번째, ‘刺’는 속음이 ‘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글자는 ‘찌를 자’자로, 여기서 속음이 ‘라’로 표기된 것은 ‘刺’, 즉 ‘어그러질 탈’과 글자의 유사함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킨, 잘못된 음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姥’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중화음이 ‘무’인데, 속음이 ‘란’로 표기되어 있고, ‘란’로 읽을 때의 뜻은 ‘외조모’로 표기되어 있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도 이 글자는 mu와 lau의 두 가지 음을 갖고 있다. 『광운』, 『중원음운』, 『홍무정운』에서 이 음은 mu에 해당하는 음만 출현하지만,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에서는 lau음이 출현한다. 세 번째, ‘仄’는 중화음이 ‘찌’, 속음이 ‘빠’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글자는 曾攝 開口 三等에 속하는 글자로,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운모가 tsɿ와 tɕai 두 가지 음을 갖고 있는데, 전자는 文讀에 속하며 후자는 白讀에 속한다. 『중원음운』에서는 이 글자가 皆來韻에 출현하여 운모가 ai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음자전』과 『경음자휘』에서는 tsɿ와 tɕai의 두 가지 음으로 표기되었다. 『한일선만신자전』에서 표기된 ‘찌’는 문독인 tsɿ, ‘빠’는 백독에 해당한다. 네 번째, ‘罷’는 중화음이 ‘빠, 거성’으로 나타나 있고, ‘파하다’, ‘마치다’, ‘그만두다’ 등의 뜻으로 쓰여 있다. 그런데, 동일하게 속음을 ‘빠, 거성’으로 표기하고, 이에 대한 뜻을 ‘명령, 희망, 미래를 표시하는 어조’라고 적고 있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罷’는 조사로 쓰일 때 ‘-해도 좋고, 또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괜찮다’, ‘됐다’, 혹은

‘그렇지언정’의 뜻으로 쓰인다. 혹은 ‘吧’와도 동일하게 쓰여 명령, 독촉, 승낙, 추측, 의문, 불확실함 등의 어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일선만신자전』에 쓰인 뜻은 ‘吧’에 대응하는 뜻을 표기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중에서 희망이나 미래를 표시한다는 서술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는 부재하며, 조금 모호하게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着’이다. 중화음에서는 ‘찌’로 표기되었으며, 속음에서는 ‘쟈’로 표기되었다. ‘쟈’로 읽히는 예로 ‘着急’를 들었다. 이와 같이 속음은 주로 근대 이후 중국어에서 보이는 성조의 변화나 어음의 용례를 다룬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한일선만신자전』의 중국어 학습 시의 효용을 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 만주음의 음운 특징

예자	『한일선만신자전』		만주어자통
	중화음	만주음	
九	쥬	기	기
疆	장	강	강
京	징	깁	깁
教	쟈	갠	갠
球	취	키	키
琴	친	킨	킨
去	취	퀴	퀴
起	치	키	키
鞋	세	헤	헤
學	쉐	헤	헤
杏	싱	힝	힝
香	샹	향	향
日	디	이	이
肉	수	우	연
事	씨	으	으
時	씨	으	으
是	씨	으	으
知	찌	찌	찌
直	찌	찌	찌
之	찌	찌	찌

『한일선만신자전』에 나타난 관화음과 만주음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크게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見組 細音字 및 曉匣母의 성모, 두 번째, 日母字의 성모, 세 번째, ㄹ음을 갖는 글자의 운모, 네 번째, ㄷㄹ음을 갖는 글자의 성모와 운모이다. 먼저, 見組 細音字과 曉匣母의 성모는 관화음에서는 성모가 ‘스’, ‘츠’, ‘스’로 구개음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으나, 만주음에서는 ‘ㄱ’, ‘ㅋ’, ‘ㅎ’로 아직 구개음화되지 않았다. 『만주어자통』에 나타난 만주음 역시 이들 글자의 성모가 ‘ㄱ’, ‘ㅋ’, ‘ㅎ’로 구개음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관화음에서는 日母字의 성모는 만주음에서는 영성모로 읽힌다. 세 번째, ㄹ음에 해당하는 ‘事’, ‘時’, ‘是’와 같은 글자는 관화음에서는 운모가 ‘ㅡ’이고, 만주음에서는 운모가 ‘ㅣ’이다.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인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止攝 開口 三等字가 대부분 ㅁ로, 나머지 二, 四等の 글자가 ㄴ로 표기되어 있다. 『화음계몽언해』에서는 종성 ㅁ은 소실되지만, 여전히 止攝 開口 三等字는 ‘ㅣ’, 二, 四等은 ‘ㅡ’운모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에서는 ‘ㅡ’, ‘ㅣ’ 혹은 ‘ㄴ’로 운모가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화어정선』에서는 ‘事’가 ‘스’와 ‘식’로, 『한어자통』에서는 ‘十’이 ‘시’로, 『중국어자통』에서는 ‘十’이 ‘식’로 표기되어 있다. 종합하여 보면, 조선시대 중국어 역학서와 『화음계몽언해』까지는 等에 따라 운모를 ‘ㅡ’ 혹은 ‘ㅣ’로 표기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이에 대한 구분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만주어’를 제목으로 한 기타 회화서에서도 ㄹ의 운모는 ‘ㅡ’, ‘ㅣ’, ‘ㄴ’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내선만족속성 중국어자통』에서는 ‘捨’는 ‘시’, ‘使’, ‘是’, ‘事’는 모두 ‘쓰’로 표기했고, 『만주어강좌』에서는 ‘是’를 ‘씨’로, 『만주어속성회화강의록합본』에서는 ‘詩’가 ‘씨’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한일선만신자전』에서는 ㄹ음에 해당하는 모든 글자의 관화음의 운모는 ‘ㅣ’, 만주음의 운모는 ‘ㅡ’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기는 ㄹ의 운모가 실제로 관화음에서는 ‘ㅣ’, 만주음에서는 ‘ㅡ’로 읽혔다기 보다 작자의 청각에 기반한

특유의 표기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ts_l음에 해당하는 ‘知’, ‘直’, ‘之’에 대한 표기이다. 관화음에서는 이들이 ‘찌’로 표기되었으나, 만주음에서는 ‘츠’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만주어자통』에서 역시 동일하다. ‘츠’는 『한일선만신자전』에서 ‘辭’, ‘次’, ‘刺’와 같이 ts_l음을 표기하는데 쓰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 ‘知’, ‘直’, ‘之’의 만주음은 ‘辭’, ‘次’, ‘刺’와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만주어를 제목으로 한 기타 회화서에서는 이들이 동일한 음으로 쓰인 예가 출현하지 않는다. 『만주어대왕』에서는 ‘紙’를 ‘찌’, ‘知’를 ‘직’, 『만주어무사자통』에서는 ‘指’를 ‘찌’, 『무사속성일선만주어자통』에서는 ‘隻’을 ‘찌’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한일선만신자전』에서 ts_l를 ts_l와 같은 ‘츠’로 표기 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북경관화음을 바탕으로 한 관화음은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 ㄹ성모로 읽히는 ‘容’, ‘榮’이 영성모로 표기되고, ion운모를 갖고 있는 ‘兄’, ‘榮’, ‘永’ 등 梗, 曾攝 ㅅㅁ 三等字가 ‘닝’으로 표기되었으며, o운모를 갖는 ‘波’, ‘破’, ‘末’는 운모가 ‘니’로 표기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여러 성조 이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危’, ‘黑’, ‘揉’, ‘連’ 등의 글자에서 기존에 북경음을 바탕으로 한 운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성조로 읽혔고, 『한일선만신자전』서 출현하는 뜻과 성조가 동시대 저작인 『국음자전』의 뜻과 성조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일선만신자전』은 본 성조 이외에 속음으로 이독 성조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는데, 본 성조는 『광운』, 『홍무정운』의 성조와 높은 일치도를 보였고, 속음의 성조는 『국음자전』, 『경음자취』와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유성음 상성자가 속음에서 거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볼 때 본 성조는 유성음 성모가 무성음화되기 이전의 성조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만주음은 見組 및 曉匣모가 구개음화되어있지 않으며, 日母를 영성모로 읽고, ㄹ음절의 운모를 i로 읽고, ‘知’, ‘直’, ‘之’를 tsi와 같이 읽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V. 결론

근대 시기에는 기존의 운서 체제와는 다른 형식과 여러 언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자전이 만들어졌다. 이 중 많은 자전이 중국어음을 병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해당 글자에 대한 뜻풀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현대에 중한사전이 발간되기 전까지 불완전하나마 중국어 사전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한일선만신사전』은 그 체제, 내용면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된 자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전은 국립한성한어학교의 교사인 이명철에 의해 편찬되었고, 중국어음과 만주어음은 중국어 회화서를 편찬한 문세영이 맡았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중국어 교육의 전문가로서 중국어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 자전은 당시 중국어 학습에의 효용을 염두에 두고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목 그대로 중국어음인 관화음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언음에 해당하는 만주어음, 즉, 동북방언음까지 표기하였으며, 관화음의 전체 음절표, ‘華字’, ‘華滿’, ‘華’ 옆에 해당 글자가 중국어 어휘에 쓰이는 용례를 부가적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어의 표준음에 대한 기술, 성모와 운모, 성조에 대한 발음 방법에 대한 기술은 중국어 회화서에서나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저자의 중국어학 지식이 최대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근대 사전에 대한 연구는 근대 사전의 체제, 계승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중국어 사전의 전신으로써의 근대 사전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일선만신사전』의 편찬 배경, 체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어 사전의 역할을 겸한 근대 사전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여기에 반영된 20세기 초 중국어음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근대 자전은 우리나라 한자음과 한자 어휘, 20세기 초 중국어음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아, 한국어와 중국어학사를 밝히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사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어 사전으로써의 근대 사전의 성격이 더 상세하고도 총체적으로 규명되길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김억섭(2016), 「한국 근현대 한자사전{옥편}에 대한 小考-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전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64, 한국중국언어학회, 113-131.
- 김억조(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ㄱ/ㅋ-g'음 고찰」, 『국제이해교육연구』 14,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51-176.
- 김영우(1983), 「구한말 외국어교육에 관한 연구 (Ⅰ), (Ⅱ)」, 『논문집 21』, 166-167.
- 김혁제(1965), 『국한명문신옥편(國漢明文新玉篇)』, 명문당.
- 김현철(2018), 「국내 중한사전 작업의 새로운 모색 및 활용 방안 - 「다락원 중한사전」의 편찬을 중심으로-」, 『東洋學』 71, 동양학연구원, 75-78.
- 노인화(1989), 「대한제국 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璵, 金光淳(1917), 『일선화영신자전(日鮮華英新字典)』, 博文書館.
- 博文書館 編輯部(1950),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 博文書館.
- 박재연(2009), 『한어회화서』, 학고방.
- 박재연(2011), 『한어회화서속편』, 학고방.
- 박형익(2012),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 박형익(2017), 『한국 자전의 해제와 목록』, 역락.
- 서미령(2011),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재의 발음 표기 양상」, 『중국어문학지』 37, 중국어문학회, 671-680.
- 신상현(2021), 「근대 이후 편찬된 한국 한자 사전의 변화 양상 연구」, 『민족문화연구』 91, 민족문화연구원, 131-159.
- 신태삼(1952), 『국한영중일신옥편(國漢英中日新玉篇)』, 世昌書館.
- 楊耐思(1981), 『中原音韻音系』,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璞(1913), 『경음자휘(京音字彙)』, 民國書國.

- 이명칠(1937), 『한일선만신자전(漢日鮮滿新字典)』, 삼문사.
- 이준환(2019), 「근대 전환기 국한문체의 형성과 자전, 사전, 학습서의 편찬」, 『배달말』 65, 배달말학회, 163-167.
- 전일주(2003), 『한국 한자사전 연구』, 중문출판사.
- 錢曾怡(2010), 『漢語官話方言研究』, 齊魯書社.
- 정익로(1911), 『정정증보신옥편(訂正增補新玉篇)』, 耶蘇教書院 .
- 정재철(2013), 「사전류의 역사와 한문 학습 사전의 필요성」, 『한문교육 연구』 41, 한국한문교육학회, 5-43.
- 중국대사전편찬처 편(1949), 『국음자전(國音字典)』, 商務印書館.
- 최남선(1920), 『신자전(新字典)』, 新文館.
- 鄒德文, 「歷史事件與東北方言的形成及其層次問題」,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8卷 第6期, 2018, 184-193.
- 하영삼·왕평·나운기·김영경·김억섭·곽현숙·나도원(2019), 『한국 근대 한자사전 연구』, 도서출판3.
- 한중선(2015), 「한국의 일본어 사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小學堂" <https://xiaoxue.iis.sinica.edu.tw/>

❖ ABSTRACT

A Study on 『Hanilseonmanshin Dictionary』 by Lee Myung-chil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 on its character and Chinese sound

Khoo, Hyunah
Yongin University

In the modern period, various forms of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were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new compilation methods from the West and Japan, while inheriting the tradition of the existing bibliography. These dictionaries use the basic form of notation for Korean Chinese sounds and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each letter, but many of them contain Chinese sounds. Therefore, the modern dictionary also served as a Chinese dictionary, in the absence of a Chinese-Korean dictionary at the time. The 『Hanilseonmanshin Dictionary』(1937) was compiled by Lee Myung-chil, a former teacher at the Government Hanseong Korean Language School, and supervised by Moon Se-young, a Korean and Chinese scholar, and it provides not only detailed examples of Chinese, but also a specific sound study of Chinese is included. In this dictionary, Mandarin pronunciation of initial in ‘容’, ‘榮’ are zero initial, finals of ‘兄’, ‘榮’, and ‘永’ are written as ‘ㄱ’, and finals of ‘波’, ‘破’, and ‘末’ are written as ‘-ㅏ’, as well as several multiple tones of some character. In addition, Manjueum, or northeastern dialect,, is also recorded.

The modern dictionary contains information on Sino-Korean sounds

of all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 vocabulary, and Chinese sound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us, it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as a bridge to reveal Korean and Chinese histor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modern dictionary research by examining the system and Chinese sound of the 『Hanilseonmanshin Dictionary』, which have not been studied before, revealing its research value and re-examining the role of modern dictionary as a Chinese dictionary.

Key Words : 『Hanilseonmanshin dictionary』,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of the modern period, Japanese colonial era, Lee Myung-chil, Peking Mandarin, Manchu sound, Northeastern dialect

■ 논문투고일 : 2022. 04. 28

■ 심사완료일 : 2022. 05. 25

■ 게재확정일 : 2022. 06. 02